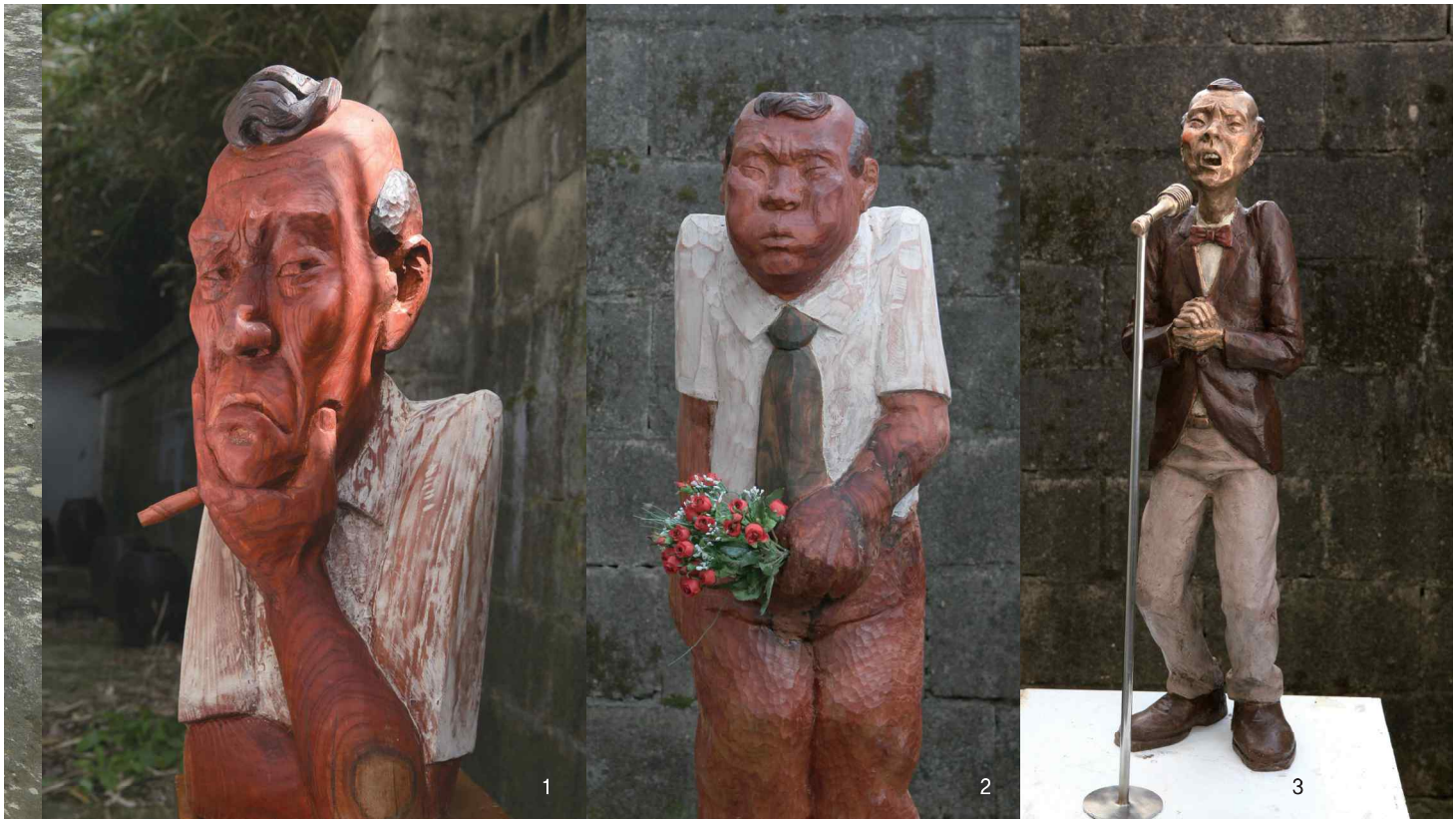
갤러리, 세계관을 담은 그릇

갤러리는 그릇이다. 작품들이 쉬임없이 들고 나는 그릇이다. 빈 그릇과도 같은 갤러리 공간은 전시 작품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다. 지난 3월부터 대구 인터불고 갤러리의 전시기획을 도우면서 작품과 작가에 따라 변모하는 갤러리의 모습에 많이 놀라곤 했다. 초봄을 연 '꽃 그림 전'에서는 갤러리가 그렇게 화사할 수 없었고 향기로 가득 차올랐다. 그런가 하면 묵향이 배어나오는 문인화의 전시가 이어졌고, 때로는 청년작가들의 치열한 실험과 탐색의 열기로 갤러리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오래 오래 기억되는 전시가 있다면 인생과 세상에 대한 작가의 깊은 성찰이 있고 그것을 흥미로운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들이다. 오의석

중년의 삶으로 인간을 말하다

중년 인생들의 애환과 허세, 그 이면의 아픔을 독특한 칼라와 나무, 브론즈, F.R.P. 오브제 등 다양한 재료에 담아낸 우성립의 조각전이 인터불고갤러리 초대로 열린다.

우성립의 조각들은 개그의 한 컷과도 같이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매우 심술궂고, 욕심스럽고, 강한 척 해보지만 많이 흔들리며 휘청거리는, 어찌보면 삶의 무게에 눌리며 찌들린 흔적이 역력하다. 틀림없는 우리시대 중년의 초상들이다. 일면 딱해 보이고 연민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 모습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더없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성립이 조각한 인생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실상이며 작품 속 인물들의 무대가 곧 우리가 처한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가 중년의 인생들을 선택하고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출생과 사망의 인생여정에서 평균적 중



1. 우성립 작, 글쎄 그런데, 목조 2. 열번의 용기, 목조 3. 고음불가

간지점에 선 그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욕심과 허세, 힘과 성취의 절정에 있었지만, 이제 하향기에 접어들면서 물러남과 잊혀짐, 소외를 경험하고 결국은 소멸하게 될 운명적 존재들을 작가는 작품의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성립의 조각은 그저 웃고 넘길 수 없는 무게를 가지며 여운을 남긴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기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요구를 그의 조각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각 앞에 서면 '과연 당신의 삶은 어떠하냐' 는 질문을 들을 수 있다. 조각이 던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보다 진지해 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웃음과 함께 각성을, 그리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성립의 조각들이 2011년의 새 봄에 우리 곁을 찾아왔다.

–우성립 조각전 보도자료(4월26일–5월5일, 인터불고 갤러리) –

불편한 의자(Uncomfortable Chair) **–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갤러리에 날아든 한 무더기의 의자들, 더러는 원색과 황금색의 채색으로 일견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 의자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네 개의 다리 중 한 두 개의 길이가 짧아 한켠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하면, 받침이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철사를 둘러놓은 의자도 있다. 작품의 명제처럼 '불편한 자리' 들이다 .

작가 양순열은 전시장으로 끌어 들인 이 의자들을 다양한 형태로 배열한다. 구석에 짝을 지어 놓는가 하면 식탁 테이블의 중앙에 올려 설치하기도 한다. 작품 '불편한 자리'는 전시장의 중앙에 원형으로 서클을 이루며 배치되어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느낌이 주기도 하다. 그렇다고 편안한가? 아니다. 의자들의 조합에서 불편함은 더욱 배가 되고 증폭된다. 불편한 개인들이 모여서 더욱 불편한 집단을 만들어 가고 있듯이 말이다.

양순열 작, 불평한 자리, 오브제 설치작품, 2011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의자, 의자는 무생물이면서 예술가의 섬'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작가가 끌어들인 오브제, 곧 사물들의 이야기는 곧 그 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양순열은 일상의 사물들을 선택하고 변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작가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아버지의 의자, 아들의 군화, 자신의 거울 등이 좋은 예이다. 사물을 통해서 각자가 처한 삶의 현실을 환기시키며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에 대한 표명을 담아낸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결국 작가는 인간 실존의 불편한 진실에 접근해 간다.

실낙원 이후 인간의 자리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힘써온 것이 인간의 삶이고 역사였다. 그리고 오늘, 그 누구의 자리도 불편하지 않은 자리는 없다. 그 자리마저도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잠시 후엔 일어서야만 한다. 양순열의 설치작품 '불편한 자리'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를 마주서게 한다.

—'상상세계의 문설주에 기대다' 양순열 초대전 (8월 · 1일—13일, 인터불고 갤러리)에서—

갤러리가 작품을 담는 그릇이라면, 작품은 곧 작가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작품은 곧 작가의 눈이고 입이고 손과 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품 속에 작가가 보는 세상, 세상을 향해 하고픈 이야기, 작가의 경험세계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갤러리를 채우는 것은 단순히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인격과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갤러리에서 보는 것은 작품이지만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작가를 만나, 그가 본 세상과 인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인상적이었던 지난 기획전의 회상과 함께 앞으로 초대되는 작가와 작품의 전시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오의석 조각가. 서울대 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나와 대구가톨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대학 IVF 지도교수로도 활동중이다. 개인전 8회(서울, 대구, 부산, 훠트웨인, 연길), 메사이어대학 초대 조각 2인전(2004), I.F.A 미술전 참가(중국 곤명,1999),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0), 대구미술의 오늘전(2004) 등에 출품했다. 저서로는 『기독교와 미술(공저) 』, 논문으로는 '성경적 조형관', '현대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부활의 조형' 등이 있다.